



NEWS

|| ▾

We Do Technology

연합뉴스

&lt;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gt;

Q U

뉴스홈 | 최신기사

# [우크라 침공] 中, 전세기 띄워 교민 철수..."원하는 사람만"(종합)

송고시간 | 2022-02-25 09:21

박종국 기자  
기자 페이지

| 약 6천명 체류..."차량 이동시 중국 국기 부착하라"



中, 전세기 띄워 교민 철수..."원하는 사람만"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선양=연합뉴스) 조준형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지 안전 위험이 커지자 전세기를 보내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대사관(이하 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긴급 통지'에서 "우크라이나 국내 정세가 급격히 악화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국민과 기업이 비교적 높은 안전 위험에 처했다"며 "전세기 귀국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인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27일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전세기 탑승 여부는 개인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전세기 파견 시기는 비행 안전 상황을 근거로 정해지며, 미리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역사, 유학생, 화교 등 6천여명의 중국인이 머물고 있다고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예고하며 일찌감치 자국민 대피와 여행금지령을 내리고 대사관도 철

요약 ? 댓글 0 개 댓글 0 개 댓글 0 개 댓글 0 개 댓글 0 개

1010회  
모토 당첨결과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 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수한 것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 침공설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사관은 또 "가급적 외출하지 말되 장거리 차량 운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 국기를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인들도 웨이보를 통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중국 국기와 여권"이라며 "생명을 지켜주는 호신첩"이라고 말했다.

한 중국 유학생은 "집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에 걸려있던 중국 국기가 사라졌다"며 "누군가 훔쳐 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지 중국인들은 "대사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곳에 머물며 전세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기 휴대 당부하는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대사관 통지  
[인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jk@yna.co.kr

#### 🔗 관련기사

- [우크라 침공] 러 두둔한 中...제재 거리두고 대러교역 강화할듯(종합)
- [우크라 침공] 中왕이 "러시아 안보상 합리적 우려 이해"
- [우크라 침공] 침공설 가짜뉴스 취급한 中, 오판 또는 의도적 부정?
- [우크라 침공] 중국, 비난·유감 표명 없어..."대화와 협상해야"(종합2보)
- [우크라 침공] 중국 "각국 자제...대화와 협상 노력해야"(종합)
- [우크라 침공] 中 "러 전역서 밀수입 허가"...서방 제재와 엮박자
- [우크라 침공] 중국 "각국 자제해 상황이 통제 있지 않기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5 09:21 송고

#우크라이나 #전세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을 위한 콘텐츠 마술, 최강 마술  
LOTTE CASTLE  
www.lotte.or.kr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열뚝뚝... 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7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9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0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콩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개인사/제휴문의